

# 행복담론 그리고 ‘충남 2040’

2016.3.24.

홍 원 표

(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)

## 목 차

1. ‘충남 2040’ 개요
2. 사회지향으로서 행복담론의 대두 배경
3. 행복담론의 구체화: 삶의 질 연구와 사회의 질 연구
4. 지역사회 미래가치로서 행복담론을 둘러싼 쟁점
5. ‘충남 2040’이 시도하는 행복담론 접목 시도

# 01

## ‘충남2040’ 개요

001

### ➤ 연구배경

: 충남의 중장기 미래에 대한 융복합적 연구 촉진하기 위한 충남미래연구의 ‘마중물 프로젝트’

### ➤ 연구성격

: 자체 기획 과제(용역이나 수탁과제 아님)

### ➤ 수행기간

: 2015년 4월~2016년 12월

### ➤ 추진방식

: 충남도 산하 연구기관의 공동연구(충남연구원, 충남역사문화연구원, 충남여성정책개발원)



# 01

## ‘충남2040’ 개요

002

### ➤ 추진 체계

: 기획편집위원회, 자문위원단, 집필진 등

### ➤ 주요 내용

: 충남의 현실진단, 미래 전망과 이슈, 충남의 미래상, 미래상 실현방향

### ➤ 최종성과물

: 미래연구총서 2권 정식 출판(충남은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?, 충남의 2040년 미래 만들기)



## 02 사회지향으로서 행복담론 대두의 배경

003

### □ 절대 빈곤 탈피와 상대적 빈곤 문제 대두

- 한국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도달
-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하에서는 행복감과 국민소득 간 상관관계가 뚜렷하나, 그 이상에서는 모호하며 국가 간 편차도 큼

### □ '삶의 질' 중시 경향 대두

-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시간과 돈을 쓰고자 함
- 사람들을 결속했던 시대정신의 퇴조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사회적 대의가 약화

### □ 행복론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

- 자아실현을 위한 긍정적 경향과 동시에 개인적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: 미래vs.현재, 공익vs.사익
- 성장일변도 사회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 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 혼재



## 02 사회지향으로서 행복담론 대두의 배경

004

### □ 이스털린의 역설(by R.A. Easterlin)

- 절대적 빈곤 단계를 벗어나면 상대적 빈곤이 대두됨
-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공할수록 사회가 행복해지지는 않는 경향

### □ 소비재와 지위재(by Fred Hirsch)

- 재화는 소비재와 지위재로 구분되며, 지위재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로서 서열이 중요한 재화임
-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소비재의 중요성보다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져, 이를 차지하지 못하는 다수는 행복해하지 않음

### □ 비상국가론(Emergency State)(by M. Castells)

- 한국은 분단이라는 비상사태에 있으며, 이는 강력한 국민 동원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
-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정치적 해석



## 03 행복담론의 구체화: 삶의 질 연구와 사회의 질 연구

005

### □ 행복담론은 ‘삶의 질 연구’와 ‘사회의 질 연구’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

- 행복담론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상 매우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음
-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크게 ‘삶의 질 연구’와 ‘사회의 질 연구’로 대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

### □ 사회의 질 연구는 지역사회발전 관련 유의미한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있음

- 삶의 질 연구가 가지는 주관성, 개별성, 임의성의 난제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
-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

구분	삶의 질 경향	사회의 질 경향
삶의 질과 사회의 질 간 관계	• 삶과 사회의 질의 다양한 구성요인들을 기계적으로 종합	• 삶과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관심
개인 및 행위에 대한 전체	• 개인은 자신의 욕구실현을 목표로 하는 존재	• 사회과정 속에서 자기실현을 통해 공동체 정체성 획득을 추구하는 존재
분석 단위	• 삶의 질 측정과 분석 단위는 개인이며,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 간, 개인·사회의 관계	• 개인 간의 사회관계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실천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서 사회
정책개입의 성격	• 국가정책의 수혜자. 개인이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개인 수준의 물질·인적·사회적 형태의 자원을 축적하여 사회체계에 통합을 지원	• 개인은 국가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나 사회관계의 상호작용의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. 국가 정책뿐 아니라 공동체 수준의 사회적 개입 필요성 강조

## 04 지역사회 미래 가치로서 행복담론을 둘러싼 쟁점

### ① 정책 단위로서 ‘지역사회’라는 개념이 유의미한가?

006

### □ 활발한 인구이동(유동)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지역 개념의 실효성이 약해지고 있다

- 교통의 발달로 인해 사람의 공간적 이동이 편리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으며,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도 지역 범위를 넘어 네트워크화하고 있음
- 지역사회라는 지리적 범위를 설정할 경우 결국 지역민의 행복 관련 정책이 물리적 개발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음

### □ 지역사회의 행복담론은 국가 차원의 행복담론과의 관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

- 인구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행복 증진 정책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행복 증진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?

### □ 지역사회는 결국 ‘돌봄’이 주요한 기능이 되어야 한다

-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30대 후반 육아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인구 이동이 급속히 줄고 정착률이 높아지고 있음 \*우리사회 전체의 인구유동도 이미 1990년대 중반을 피크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음

육아와 노인돌봄을 핵심으로 하는 ‘돌봄’기능이 지역사회의 기능으로 자리잡아야 함

## 04 지역사회 미래 가치로서 행복담론을 둘러싼 쟁점

### ② 행복담론은 너무 안이한 논의가 아닌가?

007

- **지역민의 일(자리)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지금 행복담론은 안이한 논의이지 않은가?**
  - 글로벌화, 기후변화, 권력분산, 스마트화 등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음
  - 이는 일(자리)와 관련하여 현재도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미래에는 인공지능, 지역 간 산업경쟁 등 요인으로 인해 일자리가 더욱 불안해지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
- **지역사회가 일(자리)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있다**
  - 글로벌화 트렌드 속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관계에서 민간부문의 주도성이 커지고 있음
  - 그간 투자유치 등에서의 성과는 기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으나 결국 민간의 의사결정임
- **행복담론은 기존의 지역(경제)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기초를 재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**
  - 지역의 경쟁력의 요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조직된 사람의 역량이며,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,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은 지역의 경쟁력도 높음
  -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미래에는 제한적이거나 지역차원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임



## 04 지역사회 미래 가치로서 행복담론을 둘러싼 쟁점

### ③ 행복담론을 진전시킬 지역차원의 조사연구 기반이 충분한가?

008

- **지역차원의 행복담론을 진전시킬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은가?**
  - 현재 각 지자체는 행복담론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할 객관적 통계자료나 정성적 데이터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, 제시되는 정책의 객관성, 설득력이 빈약할수 밖에 없음
  - 또한 연구방법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, 체계적인 조사연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
- **지금까지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자료에 의존하였던 경향이 심각했던 것이 사실임**
  - 가령충남의 경우시군수준의인구예측조차간헐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, 직접조사에 의한 연구보고서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 사실임
  - 이에 따라 주장은 있으되 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, 단기간에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임
- **지역차원의 조사연구를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기존 조사연구방법론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**
  - 사례연구 등 현장조사는 미래 지자체 연구원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며, 국책기관 등의 연구성과와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함
  - 최근 실시간 여론조사, 빅데이터 활용 등 조사연구방법론에 있어서 혁신적 기법을 적극 도입해야 함



## 05 '충남2040'에서 시도하는 행복담론의 접목 시도

### ① 접근방식에 있어서 현실진단에 대한 강조

009

- GNP(global-national-provincial) 방식보다는 기본적으로 PNG(provincial-national-global)방식을 채택
  - GNP방식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다 보니 각 지역의 특징이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도출되는 전략이 대동소이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움
  - PNG방식은 지역의 자체 자원과 잠재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가능하도록 하나, 도출되는 결과가 글로벌 트렌드나 국가적 장기추세와 정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
- '충남 2040'의 현실진단은 삶터, 사람, 일(자리), 사회의질, 정신문화, 지정학적 특징 등 포함
  - 제1권의 반절 이상을 현실진단에 할애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함
  - '역사적 성찰' 부분을 현실진단에 도입함으로써 현안에 매몰되는 근시안적 계획으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
  - 모든 영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일부 영역만을 다룸



## 05 '충남2040'에서 시도하는 행복담론의 접목 시도

### ② 지역 '돌봄문제'의 전면적 제기

010

- 돌봄은 행복한 지역 회 구축에 있어서 관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
  - 현재 지역사회의 결속력은 토지자산 관련한 이해, 자녀 교육을 둘러싼 관심, 종교공동체의 결속, 환경 문제에 대한 반응 등이 주된 기반을 이루고 있음
  - 저출산·고령화, 인구유출, 가족 분거 등으로 인한 '육아돌봄'과 '노인돌봄'이 주요한 지역사회의 기능으로 자리잡도록 함
  - 또한 가족 분거, 주말부부 등 현상으로 인해 친밀함 및 돌봄에 대한 요구는 전계층에 걸치는 문제가 되고 있음
- 이러한 돌봄 문제는 국가복지정책과 구분되는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형성 및 활용을 지향하고 있음
  - 전통적으로 돌봄을 담당했던 가족이 붕괴하고 국가 주도의 복지체계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, 국가에 의존하는 복지체계는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우려가 광범하게 존재함
  - 지역사회가 돌봄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응집력을 높여 '지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지역'으로 자리매김해야 함



## 05 '충남2040'에서 시도하는 행복담론의 접목 시도

### ③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구축의 중요성

011

- 임금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역 차원에서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일부를 지역 차원에서 충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
  - 인공지능의 보급, 지역 간 산업경쟁 격화로 인해 지역의 일자리 기반이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음
  - 핵심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목표로 사회적 경제 등 제4섹터의 발전을 통해 임금노동의 불안정성을 완충하게 함
- 또한 사회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'기본소득제'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함
  - 현재 충남에서는 농업을 둘러싸고 '농가기본소득제'를 꾸준히 이슈화하고 있음
  - 이외, 도시농업, 분산발전, 공유경제 등, 비임금 노동을 통한 수요충족 등도 고민하고 있음



## 05 '충남2040'에서 시도하는 행복담론의 접목 시도

### ④ 다양한 지역 일(자리) 창출

012

- 충남은 대기업 중심의 중간재 수출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
  - 일자리 측면에서 농업의 침체, 제조업 편중, 서비스업의 미흡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음
  -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발전,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, 대기업 생산시설의 조기 해외이전 등으로 인해 중간재 수출 제조업에 의존하는 충남의 제조업 편중은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
- 중간재 수출제조업 이외에, 소비재 경공업, 다양한 서비스업의 전면적 발전 등으로 인해 충남의 일(자리) 구조를 다양화해야 함
  - 지난 시기 한국사회발전의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어,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걸치는 것들을 외국인이 선호하고 있음 → 소비재 경공업 부상
  - 또한 해외수요를 충족하는 서비스시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함
- 이러한 신규 일자리는 는 동아시아 지역을 시장으로 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충남은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해외 교류가 미래의 일자리 확보에 관건적임





## 05 '충남2040'에서 시도하는 행복담론의 접목 시도

### ⑤ 충남 라이프스타일의 육성

013

- **충남의 자부심과 문화적 정체성은 미래 충남의 발전의 선결 조건임**
  - 지난 경제성장 과정은 수도권 일극화 성장이었으며, 서울 중심 문화로의 표준화 과정이었으며, 현재 지역 문화의 정체성이 매우 취약함
  - 미래 문화 콘텐츠, 관광 등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의 표준문화와 구분되는 충남문화의 육성이 절실함
  - 현재 충남의 문화·관광산업은 지난 '역사'를 우리어먹는 것에 머무르고 있으며, 일상생활에서 충남스타일은 없고 서울스타일 따라 하기가 만연함
- **충남의 주거문화, 먹거리 문화, 놀이문화 등에서 충남스타일이 필요하며, 이는 주로 관혼상제의 각 측면을 고려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**
  - 도농혼재지역인 충남의 주거문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음(도시농업 등)
  - 육해공이 공존하는 다양한 먹거리 문화 또한 잠재력이 큰 상황임
  - 관혼상제의 측면에서 충남의 라이프스타일을 조명하고 육성하는 조사연구가 필요함



## 05 '충남2040'에서 시도하는 행복담론의 접목 시도

### ⑥ 충남 지역인재 육성과 활용

014

- **충남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청년인구의 지속유출을 겪고 있음**
  - 1994년을 전환점으로 인구감소가 역전되었으나, 청년층 인구유출은 지속
  - 충남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30-40대의 취업인구, 60대 이상의 귀농·귀촌 인구임
  - 또한 다문화 가정 비중은 전국 3위로서 다문화 가족의 비중이 작지 않음
- **개방적인 관점에서 충남의 인재육성을 고민해야 할 때임**
  - 진학,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청년인구가 유출하는 것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됨
  - 충남의 지역인재는 굳이 충남출신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, 토박이 이외에도 취업과 자녀양육을 위해 지역에 정착하는 30-40대를 또 다른 지역인재의 풀로 삼는 것이 현실적임
  - 한편 스마트 노인세대(베이비붐세대), 다문화 가족 자녀는 미래 충남지역인재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
- **충남의 평생학습체계의 구축 및 핵심 에이전트의 설계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음**





#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미래연구팀장  
홍 원 표

메일: wonpio@cni.re.kr  
유선: 041-840-1188,

